

# 김용민브리핑

2017년 1월 4일 수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블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전통방송 속성! 최고의 맛은 <b>알싸한홍어</b>	1599-6456, 010-9384-7970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b>정성농장홍삼</b>	041-754-0884, 010-9754-6972 jeongseongfarm.com
시대와 삶을 함께 읽는다! <b>한국현대생활사</b>	창작과비평사 031-955-3333 goo.gl/YDYjDW
바로 잡힌 골반, 건강한 인생 <b>바디로직</b>	070-8220-5796 store.bodylogic.co.kr
무료 웹 애니메이션 채널 <b>좀바라TV</b>	032-258-6261 zombara.com
최고급 러시아 냉동대게 <b>대게직거래장터</b>	1644-9047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b>비타샵</b>	031-783-6007 vitashop.co.kr
예쁜 구형이 쏠! 장 청소는 <b>미공장사랑</b>	070-4115-0365, 010-2892-0365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b>수아비스화장품</b>	1688-9113, 031-717-1613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b>풍무양고기</b>	031-902-9292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존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b>매트리스업</b>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b>내피알</b>	032-519-4800 nepr.co.kr
일반 짜장 파스타 맛에 취했다 <b>킹닭갈비</b>	070-4217-7179 goo.gl/XYfr9D
김용민 브리핑 대리운전 <b>브리핑대리운전</b>	1522-9687 박근혜 구속시 1회 무료이용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b>에그타르트 타르트팜 컨텍스트점</b>	facebook.com/tartfarm13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b>이담채김치</b>	1544-4586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b>전창걸의새싹땅콩차</b>	070-8635-1288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b>좋은사람과플라워</b>	1566-0263 flowergood.co.kr
월1만원 황제보령커피 그리고 <b>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b>	02-849-9730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먹고 먹을 수 있는 <b>와우전복</b>	010-2443-0818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미술에 팔팔 끓인 <b>연지연곰탕</b>	0-10-7252-1114, 031-989-9968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 “MBC 개 쓰레기”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지난 1월 2일밤 대구MBC에서는 박근혜의 정치적 고향에서 벌어진 촛불민심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취재 카메라에 MBC 표식이 붙어있었으니까 촛불 시민 한 분이 MBC는 개쓰레기라며 맹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MBC는 이 말을 자막으로 받아 적기까지 해서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사실 대구MBC는 지난 사드배치 과정에서 성주주민의 분노와 항거를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서울 MBC와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성주주민과의 협의조차 없었던 일방적 사드배치가 대구 촛불의 한 부분이라고 상정한다면, 대구MBC는 서울MBC가 먹어야 할 욕까지 대신 들은 셈입니다.

광주MBC 생각이 났습니다. 광주MBC는 5.18 때 시민에 의해 불탔습니다. 그 뒤 광주MBC는 박근혜의 언론탄압 상황에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광주항쟁의 가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내는 기사를 꾸준히 내 시민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방송의 저널리즘은 지금 회사 밖으로 쫓겨난 해직자와 지역문화방송 언론 노동자들의 가슴에서 온존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세상, 시민에게 수복되는 그날, MBC는 개쓰레기의 오명을 벗게 될 것입니다.

###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월 4일(수) 1부 | 대구MBC "MBC는 개쓰레기" 발언 그대로 방송

[오프닝] 서울MBC가 먹을 욕을 착한 지역MBC가 듣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박근혜, 재벌총수는 물론 네덜란드 왕에 최순실 회사 소개

-“우병우, 대학총장 후보 성향 거론하며 ‘자격 없음’ 주장”

-국정원, 삼성 합병 전 안종범에게 국민연금 동향 보고

-청와대·여당 말단도 자괴감... 사학·탈당해 참회하는데

-김기춘 휴대전화에 현직 검사장들 연락처 빼곡... 왜?

[뉴스듣기능력평가] 정유라 체포된 덴마크...국경 인접국은?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트럼프도 북핵 관련 '무시 방기 방치' 정책 이어갈 듯

-‘오바마 케어’ 없으려는 트럼프...건강보험 칼 덜 준비 끝내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전원책의 “국민연금은 잘못 없다”는 논리에 대한 반론

-“문재인은 경제 대통령” “올해 IMF사태급 경제위기 올 것”

여론 및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

[공화국 논평] JTBC가 이기혁에 대한 강도높은 조치

최순실의 나라

한겨레 박근혜, 네덜란드 왕에까지 崔 민원?

최순실이 대통령 박근혜를 통해 네덜란드 국왕에게까지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납품 민원을 넣으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근혜에게 최소한 서너 차례 '최순실의 뜻'이라며 민원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한 박근혜 역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는 "KD코퍼레이션이 최순실과 아는 회사인지 몰랐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노컷뉴스 崔, 총수에게 '崔 회사소개서' 건네

대통령 박근혜가 재벌 총수들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최순실의 회사소개서를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총수들이 박근혜가 최순실의 직·간접적인 회사들과 정유라를 도와달라며 회사소개서인 '지명원'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가 최순실과 직접 공모를 했다는 결정적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본인도 재임 당시 이 자리에 있었으며 박근혜가 지명원을 총수들에게 건넨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블랙리스트의 나라

東亞日報 최순실에 방해되면 블랙리스트 올라

특검은 김소영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으로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교육문화수석실이 리스트를 작성했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전·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는 '좌파' 인사들뿐 아니라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방해가 되는 인물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1급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특검에 진술했다.

김용민 브리핑  
1월 16일 콘텐츠 보강 선언

중양일보 우병우, 대학총장들 사상검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부에 비판적인 교수들이 국공립대 총장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역학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로 사상이나 성향을 문제 삼아 후보자의 결격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전 청와대 수석의 증언에 의하면 수석회의에서 인사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이 결격을 강하게 주장하면 다른 수석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수석회의에서 대학이 선출한 1, 2순위 후보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한국해양대, 순천대, 경상대, 충남대, 경북대 등은 1순위 후보자 대신 2순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했다. 이전 정부들에선 2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

경향신문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개입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 정보관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활용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다. 압수수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국가정보원 정보관들과 주고받은 각종 문건과 메시지가 발견된 것이다. 문건에는 "진보 성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공화국

朝鮮日報 국정원, 靑에 국민연금 동향 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원 직원이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의 내부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를 확보했다.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압수한 안종범의 휴대전화에서 국정원 직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합병 찬성이 박근혜 지시로 보고있다.



## 국민일보 흥완선, 삼성에 '사례' 받은 듯

국민연금 흥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을 결정한 투자위원회를 주재했다. 그런데 당시 흥완선 전 본부장은 회의를 정회하고 투자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합병 찬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흥완선 전 본부장이 추후 삼성에게서 '사례'를 받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흥완선 전 본부장이 취업한 회사에 삼성이 합병 대가로 자본금을 지원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 국기실종 대한민국

## 한국일보 김기춘, 검찰에 영향력 행사 정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휴대폰에서 현직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의 연락처를 다수 확인했다. 특검팀은 휴대폰에 연락처가 저장된 검사들이 '현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30년 정도 기수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적 친분관계가 아닌 것이다. 업무상으로도 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 검사장들과 직접 연락할 일은 없다. 김기춘 전 실장이 재임 당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 한국일보 말단 직원만 못한 박근혜

한국일보 김지은 정치부 기자가 '기자의 눈' 코너에 기고한 글을 소개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도운 말단 당직자부터 청와대 직원까지 저마다의 방법으로 참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한 여권 인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식발을 했고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탈당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권한이 정지된 때인데도 새해가 됐다고 출입기자들과 차를 마시며 자신의 무고함을 강변했다. 박근혜의 머릿속엔 "손톱만큼도" 잘못이 없는 자신을 국정농단에 "얹는" 현재의 상황이 그저 "어이없다"는 생각뿐인 듯하다.

 **국민TV** 이제 새출발하겠습니다  
조합비 납입으로 함께 해주세요  
미디어협동조합 [http://coop.kukmin.tv/main/A\\_4\\_1\\_1.html](http://coop.kukmin.tv/main/A_4_1_1.html)

### 평창올림픽 관련

## 朝鮮日報 서울~강릉 KTX, 상봉역에서 출발

국도교통부는 "평창올림픽 때 평창 진부역으로 가는 KTX 열차 가운데 일부가 상봉역에서 출발하도록 상봉역 시설을 100억여원을 들여 개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림픽 이후 강릉행 고속철은 상봉역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상봉역에서 고속철이 출발하면 1시간 6분 만에 강릉에 도착할 수 있다.

### 출판업계 비상

## 東亞日報 국내 2위 도매상 '송인서적' 부도

국내 2위 출판 도매상인 송인서적이 부도를 내고 사업을 접기로 했다. 출판계에서는 송인 사태가 출판사와 서점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피해액 규모는 출판사들은 470억 원, 서점들은 210억 원으로 알려졌다. 대형 출판사는 그나마 손해를 감수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형 출판사와 소형 서점 가운데는 송인과 주로 거래한 곳이 많다.

### 오늘의 칼럼

## 한겨레 "후계 승계의 비용"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한겨레 안재승 논설위원의 "후계 승계의 비용"이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지난해 9월 아버지 함태호 명예 회장이 별세하면서 오뚜기 주식 46만 5543주를 물려받았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12월22일 종가 66만8000원을 기준으로 상속액이 3110억 원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에 따른 세금은 절반 15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1987년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별세했을 때 176억 원의 상속세를 냈다. 당시 삼성의 총자산은 11조 5872억 원이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 가치는 지난해 12월 기준 14조4천억 원에 이른다. 이 부회장이 아버지의 주식을 정상적으로 상속받아 총자산 348조 원의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수조원대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걸 안 내기 위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필요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